♬ 트로트…가요…성악 스님들 노래포교 '흥겹다'

노래하는 스님? 얼핏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음성공양을 통해 불법을 전하는 스님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음가요, 찬불가, 트로트, 명상음악,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다가고 있어 포교 효과도 크다.

현재 교계에서 불음 포교를 하고 있는 스님들은 범능, 지범, 정률, 대주, 도신, 심진스님 등 10명 정도. 이들 중 최근들어 활발한 활동을 펴며 음성포교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이는 범능 스님(대전 대진정사 주지), 지난 달 '오월의 꽃'과 '먼 산' 등 두 개의 음반을 잇달아 발표한 범능 스님은 출가 전 전남대에서 국악을 전공한 음악도 출신이다. 광주에서 공부한 영향으로 민중가요를 주로 작곡하며 직접 노래까지 불렀던 스님은 93년 출가 이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도종환, 김용택 시인에게 노랫말을 부탁해 이번 음반을 만들었다. 1집 '오월의 꽃'은 제목이 상징하듯 광주 민중항쟁을 소재로 만든 곡들이고, 2집 '먼 산'은 불교사상이 녹아 있는 노랫말에 국악리듬을 붙인 서정적인 찬불가요다.

91년 〈부모은중경〉 노래로 데뷔한 지범 스님(제주 불광사 주지)은 가을 경 선보일 6집 '명상의 노래' 음반 녹음작업에 한창이다. 스님의 노래는 주로 부처님의 경전과 선시에 곡을 붙인 것들이어서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5년부터는 새 음반을 내놓을 때마다 제주 문예회관에서 발표회를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불교와 트로트를 접목한 대주 스님(청량리 백선사 주지)의 노래를 들으면 일상의 번뇌가 눈녹듯이 사라짐을 느낀다. 평소 '염불은 가장 멋진 음악' 이란 지론을 펴온 스님은 99년 손목인 씨의 미발표 유작음반을 기획하며 설운도, 주현미, 명국환 씨 등 트로트 가수들과 라이브 콘서트를 열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스님은 앞으로 개신교, 천주교 등 타종교의 성직자들과 함께 대중음악을 소재로 한 종교화합음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스님은 출가자로서는 유일하게 성악을 통해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지난 88년 삼소회 음악 공연을 계기로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한 정율 스님은 지난해 찬불가 모음집 '영겁을 하루같이'를 발표하면서 운흥사, 보탑사, 봉은사 등 전국 유수 사찰음악회에 단골 초청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원광대 음악교육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한 스님은 교계의 전문 음악가들로 구성된 '부르나 솔리스트 앙상블'도 결성해 불교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국악교성곡 '붓다' 와 같은 대규모 공연에서 활동하는 도신 스님을 비롯해 '우리 가는 길' '산사' '어머니' 등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의 심진 스님(현등사), '사람사는 정' '인연따라 바람따라'의 해성 스님, 최근 찬불가요 '샘'을 발표한 보현 스님(부처님마을)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불음 포교사들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범능 스님
'오월의 꽃' 등 2장 출반

지범 스님
가을 선보일 음반 녹음

대주 스님
종교화합 음악회 추진

정률 스님
산사음악회 단골 초청

◇범능 스님

◇지범 스님

◇대주 스님

◇정률 스님

"사찰음식은 중요 문화유산"

선재사찰음식硏 개원 선재 스님

"음식은 단순히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문화까지도 지배하는 큰 힘을 지녔다. 특히 사찰음식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최근 문을 연 서울 보타사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선재 스님의 말이다.

연구원 개원 후 스님은 주중에는 보타사 연구원과 동국대, 한국음식연구소 등에서 사찰요리를 지도하고, 주말에는 지방을 돌며 사찰음식을 조사하고 새로운 자료를 정리하는 등 눈코뜰 새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스님은 지난 8일 환경보호운동모임인 〈지구를위한시민행동〉에 초청받아 '산사의 선식으로부터 배우는 식탁문화'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문예진흥원 주최로 20일~23일에 열리는 외국인과 재외교포를 위한 국제문화학교에서 사찰음식 만들기와 바루공양 체험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천에서 서울로 옮겨온 후 오염된 공기 때문에 담아두었던 장이 상하는 것을 보고 환경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는 스님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생각에서 우리 삶의 터를 지키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먹을거리 문화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연구원에서 쓰는 요리재료 가운데 밀가루와 식용유만 제외하고 모두 손수 마련한 천연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름에 먹을 만한 사찰음식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스님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기보다는 호박이나 보리차 등 몸의 열을 식혀주는 음식과 제철에 나는 잎사귀 식물을 이용한 음식으로 열을 식히고, 수분을 조절하는 등 몸이 스스로 더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름을 이겨내는 비법"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초의선사 그림 '다산초당도' 발견

고미술 수집가 '백운첩' 공개

초의 선사가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다산초당을 그린 산수화가 발견됐다.

이 그림은 고미술수집가 이재환(42 · P&N 대표)씨가 4일 공개한 다산의 〈백운첩〉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백운첩〉은 다산이 1812년 음력 9월 초의 스님과 함께 월출산을 구경하고 인근 백운동(현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에서 하룻밤 머문뒤 만든 20폭 짜리 시화첩 형식이다. 여기에는 다산초당도를 포함한 초의 선사의 그림 2점과 다산 한시 12수 등이 포함돼 있다.

다산은 발문에서 "승려 의순(초의 스님의 속명)이 '백운동도'와 '다산초당도'를 그려 두 곳의 우열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고 적었다.

초의 선사는 〈동다송〉을 저술한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조로 꼽힌다. 이번에 초의 선사가 직접 그렸다는 두폭의 산수화가 발견됨으로써 차, 시, 글씨와 더불어 그림에까지 조예가 깊었던 스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자 기자

◇초의 선사가 그린 '다산초당도'(가로 27cm, 세로 19.5cm).

새 찬불동요 CD

'풍경소리 12' '으뜸 · 버금 · 딸림'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좋은 벗 풍경소리에서 찬불동요 창작곡 열두번째 모음집 〈풍경소리 12〉와 어린이 찬불동요 모음집 CD 〈으뜸 · 버금 · 딸림〉을 발표했다.

어린이불자를 위한 여름불교학교를 앞둔 시점에서 선보인 찬불동요 〈풍경소리 12〉에는 신나는 대중가요풍의 '부처님 품안에서', 염불하는 마음을 노래한 '염불소리' 등 12곡의 새 노래가 담겨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12곡의 찬불동요를 실제 불교학교에서 반주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래부분 외에 반주 부분을 첨가했다.

3장의 기획 앨범으로 내놓은 찬불동요 모음집 〈으뜸 · 버금 · 딸림〉에는 지난 1995년 찬불동요 창작곡 제1집~10집에 담긴 노래 가운데, 어린이법회를 중심으로 널리 불려지는 90곡을 엄선했다.

수증 스님 수묵화전

20~26일 경인미술관

화가 수증 스님이 20일~26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작은 바위 옆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수선화를 그린 '수선의 노래', 풀섶에 다정하게 앉은 산새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한마음'을 읽어내는 등 잠시 마음을 멈추어 다시 생각하게 하는 35점의 수묵화가 전시된다. (02)733-4448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오랜만에 옛친구를 만났다. 평소에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지만, 속내를 주고 받을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知己)'이 소중하고, 그런 사람과 가끔 만나 나누는 대화가 없다면 이 넓은 세상은 사막처럼 삭막해질 것이다.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창 밖을 쳐다보았더니 어느새 붉은 노을이 걸려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깜짝 놀랐다. 점심시간에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벌써 저녁이 되었던 것이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불교에서는 이런 시간체험을 '삼매(三昧)'라고 한다. 한 가지에 마음을 집중하여 시간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화엄경〉에는 이렇게 진리를 체득하는 방법으로 열 가지 삼매가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으뜸은 '해인(海印)삼매'인데, 그 내용을 신라의 의상 대사는 '화엄일승법계도'에 잘 요약해 놓았다.

최치원의 〈부석존자전(浮石尊者傳)〉에 이 글이 탄생한 연유가 소상히 나와 있다. 의상이 당나라에 건너가 스승 지엄의 문하에서 화엄을 수학하여 마침내 공부를 마무리할 때가 되자, 꿈에 신인이 나타나 깨달은 바를 저술하여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권고를 받았다. 스승 지엄이 그 말을 듣고 의상에게 졸업논문을 쓰게 한다. 방대한 화엄경을 요약하여, 처음엔 10권 분량의 글이 나왔고 다시 가다듬어 한 권으로 축약했다. 지엄은 의상을 데리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서원과 함께 책을 불살랐다. 마침내 타고남은 210자를 정리한 것이 법계도이다.

의상 스님은 각고의 노력으로 화엄경을 공부하며 해인삼매 중에 터득한 '시간관'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는 30행 중에서 4행을 시간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문학적 주제 '시간'(2)

시간 흐름 끊고 삼매에 들면 영원도 한 순간

無量遠劫卽一念 무한히 긴 시간도 한 찰라
一念卽是無量劫 한 찰라가 곧 무량겁
九世十世互相卽 흐르는 시간과 순수한 시간이 서로 곱해져도
仍不雜亂隔別成 어지러이 섞이지 않고 정연하다

이 글에서 먼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즉(卽)'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사바세계(일상)와 화엄법계를 가르는 경계이다. 말하자면 차원의 문제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가려면 이 말을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는 일상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이것이 곧 저것이고, 저것이 곧 이것이다'는 이해하기 힘든 초논리를 통해 초월적 세계를 드러내는 방법론이 '즉'이라는 말이다. 비유하면, 공간과 시간의 관계에서 이 둘이 더하기로 만나면 일상의 차원이고, 곱하기로 만나면 삼매의 차원이 된다. 마음을 모아 시간의 흐름을 끊고 삼매에 들면, 영원도 한 순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한다. (계속)

■문학평론가